

# 대선 드라마, 기억과 전망, 내용과 형식

김정환

노무현의 대통령 출마 및 당선 과정은 온 국민이 참여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당선 후 벌어지는 일은, 더욱 그렇다. 정치판은 삼시간에 쏠아졌고 대중문화판은 삼시간에 건강하고 일상적인 웃음과 농담으로 100분짜리 TV 아침 프로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성대를 묘사하는 개그맨과 나누는 대화에서 보듯 생기발랄해졌다. 김대중 정권 수립이 박정희 군사 정권 세력에 장구하게 맞서왔던 민주화 세력의 최종 승리를 상징한다면, 노무현의 당선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했던 (재야) 정치권 및 민주화운동권의 노쇠화, 그것에 따른 사회 전반의 노쇠화(군사적 강건과 동전 양면을 이루는)를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연 것이다. 그렇게, 온갖 실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정치혁명을 문화혁명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할 기회를 갖게 됐다. 선진적인 인터넷 민주주의가 일방적인 반공 논리는 물론 보릿고개 운운의 케케묵고 낡은 경제 논리까지 극복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돌이켜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2002년 대선으로 우리는 젊은 사회가 드러나 사회를 젊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 두고 두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또 후대를 가르칠 수 있는 드라마의 기억을 갖게 됐다.

2002년 대선은 말 그대로 2000년대가 불운한 한국 현대사를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노무현 당선은 한마디로, 전망을 위한 드라마였다. 그러나 전망의 드라

마는 훨씬 더 지난하고 오래 걸리며, '전망=드라마'는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에 가득 찬 현실주의적 노정을 밟아야 한다. 대중 연예문화는 보수(신문)언론의 냉전 논리의 어깨 힘을 빼고 손목을 풀었지만, 웃음과, 농담 혹은 눈물의 대중 드라마 만으로 전망을 대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터넷 민주주의는 근거 없는 권위의 모래성을 허물어버렸지만 익명 비판의 아나키즘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억과 전망의 변증법은 민주화 운동 대열에 동참하며 공유했던, 개인이 수십만 군중의 전망을 품는 감동적인 민주주의의 기억을 현재화하고 '정치=형식'의 전면에 등장한 젊은 세대들에게 아름다움의 모뉴멘탈리티로 '내용=길'을 제공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 세대차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세대교체다. 수난이 내용을 대체하고 민주화운동 경력이 곧바로 정치경력화하던, 시대도 끝났다. 그리고, 그렇다. 보혁 갈등이 아니라 개혁의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다면, 개혁은 가장 지긋지긋한 단어로 우리 일상 속에 남을 것이다. 개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식의 응축이고 혁명은 응축의 응축이다. 기억과 전망의 변증법은 상식과 혁명의 변증법이기도 하다. ■

---

김정환 | 본지 편집위원, 시인, 한국문화학교 교장. 시집 『지을 수 없는 노래』, 『해방서시』, 『김정환 시집 (1980-1999)』, 소설 『세상 속으로, 그 후』 외 다수.

